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27	08. 03	08. 10
대 표 기 도	장래황 형제	이상호 목사	윤미경 자매
성 경 봉 독	장래황 형제	정환영 형제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방학 중에도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4. 아프리카에 성경 보내기 - 500유로 헌금했습니다.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신기훈 형제, 정수영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2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85 : 8 - 13(구p865) (Psalm 85:8-13)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최고의 언어

영국에 사는 한 여성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동네에 건장이 좋지 않아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여성 성도와 함께 매주 목요일이면 누워서 지내는 길 건너의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 건너에 사는 불신자인 이웃이 자신을 중보한 한 여성 그리스도인의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그토록 축복해 주셔서 제가 다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여인은 자신이 축복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매주 제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여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삿대질을 하지 않더라도 침묵의 저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뒤통수가 따갑더니 마음을 파고 들면서 영적기후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권세에서 비롯된 저주를 느낄 수 있다면 불신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속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느끼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도 전도 / Ed Silvano 목사(가정 상담가)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살롬”에 대해 서로 나눠보세요.
2. 언제 진정한 평안을 느껴보셨나요?